



# 우리가락, 젊은 문화공간 속으로

광주국악방송  
카페 '스토아'서  
3차례 공개방송

최근 광주 곳곳에 작은 문화 공간들이 동지를 들고 있다. 다양한 개성을 담은 공간들이 생기니 자연스레 그 안에 채워질 콘텐츠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올 봄 개국한 광주국악방송(FM 99.3MHz)이 도심 문화 공간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0월 개편을 통해 신설된 '임용의 내일로 가는 우리음악'(이하 우리음악)을 통해서다.

'우리음악'은 국악에 생소한 젊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 '바다 프로젝트'의 리더이자 작곡가 임용씨가 맡고 있다. 임씨는 국악 창작그룹 '도드리', 퓨전 국악밴드 '신시락 프로젝트 모호' 리더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진행자로 안성맞춤이다. 프로그램은 '세계음악여행', '시조 배틀', '풍류남녀', '호남의 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우리음악'은 매주 토요일 코너인 '새파란 우리음악'을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한다. '새파란 우리음악'은 젊은 국악인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연주도 듣는 프로그램.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다보니 청취 대상에 한계가 있어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우리 음악을 가지고 젊은층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찾아가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려주며 어떤 생각이든 기획하게 된



민속악단 '여음'

29일 '도시 서원'...민속악단 '여음' 씻김  
12월 5·12일 '하늬'·'노름마치' 등 초대  
무료 공연...선착순 30명 커피·타르트 제공  
'임용의 내일로 가는 우리음악' 토요일 코너

게 공개 방송이다. 특히 젊은층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은 현대식 카페에서 우리 국악이 울려 퍼지는 즐거운 상상을 했다. 프로그램 제작을 맡고 있는 고미란 PD는 지역 문화 공간들을 탐색하게 시작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스토아 어바나'(광주시 동구 동명동)를 선택했다. 컨테이너 건물인 '스토아 어바나'는 얼핏 보면 모던한 건물로 보인다. 고PD는 주인공인 건축가 김창국씨로부터 안동 병산서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설명을 듣고 전통과 현대가 맞닿아

있는 이 공간이야말로 프로그램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공개방송은 '도시 서원(스토아 어바나 STOA urbana)'에서 몸과 마음을 '다'로 정했다. 출연진은 민속악단 '여음'으로 씻김을 선보인다. 두번째 행사는 '아정한 선배와 새파란 후배 ON-SANJO'(12월 5일 오후 7시30분)로 선배와 후배 음악인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국악그룹 '아정한'과 지역의 민속악단 '하늬'이 함께한다. 12월 12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세

번째 공개방송은 '세계 속에서 빛나는 별 우리음악'을 주제로 열린다. 초대 음악인은 '김주홍과 노름마치'다. 2014 WOMEX(월드뮤직박람회) 공식 쇼케이스에 초청되고 2011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한 노름마치는 50개국 200여 도시 우수 극장과 페스티벌에 참여한 스타 그룹이다.

공개방송 내용은 오는 12월 6일부터 3주간 방송될 예정이다. 공개방송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회 사전 예약자 30명에게 선착순으로 아메리카노와 미니 타르트를 증정한다. '스토아 어바나'는 갤러리도 갖추고 있다. 현재는 '우먼스 파이브런'이 진행 중이다. 여성 사진작가 송경옥·임난희·박정선·박순영·김수정씨가 '그녀들 5인, 서랍을 열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고미란 PD는 "젊은층과 만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직접 만나는 시도를 했다"며 "기회가 닿으면 다른 문화 공간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국악방송은 광주를 비롯, 진도·목포·전주·남원을 가청권으로 하며 인터넷(www.gugakfm.co.kr)으로 들을 수 있다. 서울 제작 프로그램 이외에 '윤희철 김산옥의 빛고를 상사다' (월~금요일 오후 2시~4시) 등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다. 문의 062-671-0993(국악방송), 070-8885-8142(스토아 어바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서

잠월미술관 12월7일까지 김정남전

잠월미술관은 오는 12월7일까지 김정남씨를 초대해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서'전을 연다.

만화를 전공한 김씨는 합평에 거주하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로, 올해 잠월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일러스트 표현이나 캐릭터를 의인화해 전달한다.

'감정'을 다양한 동물에 담은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문제, 사랑, 즐거움 등이 간결하면서도 색채미가 뛰어난 작품에 녹아 있다.

특히 '너를 위해 우쿨렐레'와 같은 작품에서는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들을 다양한 기호학적 장치들을 통해 드러낸 듯한 인상을 준다.



'너를 위해 우쿨렐레'

작가는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나 잃어버린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오픈식은 29일 오후 2시다. 문의 070-8872-671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리코더 음의 향연

광주시립교향악단 '비발디와 리코더'...28일 문예회관

리코더 연주를 감상하다 보면 그 변화무쌍함에 놀라게 된다. 작은 악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음의 향연이 색다른 감동을 전한다.

광주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리코더 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주최하는 '비발디와 리코더' 연주회를 통해서다.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연주회에서는 백진현(동서대 대학원 지휘 전공 교수)씨가 객원지휘자로 참여한다. 첫 곡은 구노의 '파우스트' 발레음악이다. 이어 권민석씨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작품 441'을 연주한다. 2009년 몬트리올 국제 리코더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권씨는 헤이그 왕립음악원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된 고음악 앙상블



백진현씨

권민석씨

'콩코르디 무지치'를 창단,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발디의 '홍방울새 협주곡 작품 428'이 이어지며 피날레 곡은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 출판계 10대 뉴스

'도서정가제' 1위

올해 출판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는 지난 21일 본격 시행된 도서정가제였다.

출판전문지 '출판저널'은 이달 7~11일 5일간 출판계 종사자 124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출판계 10대 뉴스'를 묻는 결과 도서정가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쌤앤파커스 성폭력 사건, 민용사 부당 해고, 백희나 작가의 '구름땀' 저작권 문제, 출판 팟캐스트 '피비우스의 피지', '미생' 열풍, '지혜의 숲' 도서판 논란, 세월호 특집 '문학동네' 가을호 매진, 인문학

열풍,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여론 등의 순으로 '출판계 10대 뉴스'가 선정됐다.

분야별 화제적으로는 인문 분야에선 프란체스코 교황의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와 강신주의 '나는 누구인가'가 꼽혔고, 예제이 분야에선 박범신의 '힐링',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여행'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설 분야에선 허기시노 게이코의 '공허한 심자가', 파울로 코엘료의 '불륜'을 비롯, 김훈의 '칼의 노래', 김병아의 '어우동, 사랑에 죽다' 등 역사 소설도 약진했다고 출판저널은 전했다. 그밖에 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색칠 그림책 '비밀의 정원'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5회 연속 선정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